

## 광주 무상 수학여행 초·중·고생 내년부터

### 시교육청 57억원 확보 경비 전액 지원

내년부터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공짜' 수학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이 수학여행 경비를 사실상 전액 무상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초·중·고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 경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산 57억여원을 확보한 뒤 2013년, 2014년 각각 58억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경비는 현재 235개 초·중·고 학교에 지원되며, 내년 수혜대상 인원은 수학여행 실시대상인 초등학생

1만8000명·중학생 2만3000명 등 4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생 1인당 지원액은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가량으로 사실상 경비가 전액 지원되는 셈이다. 현재 초·중·고의 1인당 수학여행 경비는 9만~10만원(1박2일 기준), 중학교가 14만~15만원(2박3일)선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수학여행 경비를 편성하는 한편, 확보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초·중·고교 가운데 한 곳을 택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의회에서 해당예산의 통과 여부다. 일부 교육청의 수학여행 경비 지원방식에 대해 의회에서 '신신성'이라며 제동을 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사항이 아닌 수학여행에

대해 저소득층이 아닌 전체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 시비였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초·중·고생 1인당 8만원, 고교생에는 10만원 가량의 수학여행 경비를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지원액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경비가 지원되면 초·중·고교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고학생들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자기 만들기 즐거워요"  
자매대학 학생 50여 명이 29일 광주 남구 압촌동 광주 도예문화센터에서 물레로 도자기를 빚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국제 여름캠프'에 참가한 미국·호주·인도네시아 등 해외 자매대학 학생 50여 명이 29일 광주 남구 압촌동 광주 도예문화센터에서 물레로 도자기를 빚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 초·중·고 종이 교과서 사라진다

###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수업 활성화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서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어 무거운 책가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고, 각종 평가도 온라인을 통해 시행된다. <관련기사 3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지능형 맞춤형 교수-학습 체제'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스마트 교육은 학교가 개인의 수준

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 2조228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4년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진다.

디지털 교과서는 무거운 책가방을 대신하고, 학습지와 참고서를 별도로 사는 부담을 덜어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평가와 개인별 학습수준 진단도 이뤄진다. /연남뉴스

## 민선시대 官舍의 모순

### 혈세 먹는 중앙집권시대 유물... 폐지론 비등

자치단체장들의 관사(官舍)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관선 시절 중앙에서 부담하는 단체장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시설인데,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자신의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관사 운영으로 아까운 혈세를 쓸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29일 광주·목포경실련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목포·순천·광양시와 강진·곡성·보성 등 14곳에 이른다.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뜻을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가 관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경비도 수천만원에 달한다. 광주시의 경우 민선 4기부터 현

제까지 모두 6100만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왔고 전남도도 6427만원을 투입했다. 이외 강진군 2950만원, 목포시 2481만원, 광양시 5258만원 등의 운영비를 지출했다.

최근 전국의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관사를 주민 편의시설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관사를 새로 구입하는 지자체도 있다. 해남과 곡성의 경우 민선 5기 들어 군수를 위해 예산으로 관사를 마련했다. 해남은 군수 관사용으로 1억6670만원을 들여 44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한 것도 모자라 집기 마련을 위해 혈세 2600만원을 쏟아부었다. 민선 5기 들어 지출한 관리비만 400만원이 넘는다.

시민단체들은 과거와 달리 단체장들이 대부분 자신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을 고려하면 관사 사용은 오히려 낭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목포·여수·순천경실련은 29일 관사 폐쇄 촉구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는 중앙 집권시대의 유물이고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인사가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만큼 자치단체는 당장 관사를 폐쇄하고 운영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 알림

### '종교칼럼' 필진 바뀝니다

매주 금요일 연재되는 광주일보 '종교칼럼'이 7월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성직자 네 분이 들려주는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의 세상살이에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나다 순>



김재영 목사    박덕규 교무    서달원 신부    현지스님

- ◇김재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미 메코믹 신학대학원 박사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
- ◇박덕규 원불교 서광주교당 교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졸업 ▲서울 신촌교당 ▲고창 흥덕교당
- ◇서달원 고흥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광주가톨릭대 대학원 졸업 ▲천주교광주대교구 남평 주임 ▲천주교광주대교구 남동 주임
- ◇현지 무등산 원효사 주지  
▲법주사 승가대학 졸업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장

光州日報社

##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와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필드, 롯데백화점, 메리트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회,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상록회관, 농성동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점보 / 프르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 취급사 /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